제 6 장 칸트의 철학 II

1. 「실천이성비판」은 자유의 윤리학을 정당화한다.

◇ 윤리학은 인간을 자유로운 주체로 보았을 때만 가능하다. 물론 이것은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생각이다.
→ 아렌트(Hanna Arendt, 1906-1975)가 '악의 평범성'에 대해 지적한 것은 다분히 칸트적인 논의이다. 그녀는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지 않을 경우 악을 저지른다고 보는데, 이것은 결국 악이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항상 접하게 되는 평범한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.
→ 정신이상자나 어린아이의 사유 능력은 훼손되거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가 불가능하다고 본다.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책임을 따질 수가 없게 된다. 또한 만약 범죄자 DNA 가 있다면, 우리는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.
◇ 칸트의 윤리적 명령은 "우리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려고 의지해야 한다."는 정식으로 정리된다.
→ 문제는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과연 보편적인가의 문제가 남는다.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입법, 즉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리는 단지 특정 시대의 삶의 규칙에 지나지 않았다. 그래서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원리를 통해 칸트의 논리를 더 급진화시킨다. "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것과 같은 행동을 수행하라."
◇ 칸트는 또한 "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."고 역설한다.
→ 수단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것에 종속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, 목적으로 본다는 것은 자유로운 주체로 본다는 것이다. 예를 들어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타인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. 반면 그 사람을 자유로운 주체로 보고 관계하는 것이 타인을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.
→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.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? 따라서 칸트의 윤리학은 반자본주의적 윤리의 원리일 수도 있다. 이 점을 통찰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철학자 가라타니 고진(柄谷行人, 1941-)이다.

2. 「판단력비판」은 아름다움의 독자성을 정당화한다.

◇ 아름다움은 무관심으로 사물을 보았을 때 느껴진다.
→ 무관심하게 본다는 것은 그 사물을 이론적 관심이나 실천적 관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. 그래서 칸트의 무관심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무관심과 구별해야만 한다. 들판에 활짝 핀 들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여다보던, 그리고 산정에서 아름답게 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경험을 떠올려보자.
→ 아름다움은 단지 미적인 제도의 압력이라는 성찰도 흥미로운 지적이다. 이것은 미술관과 같은 제도가 무관심하게 보아야만 한다는 점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. 조슈아 벨 (Joshua Bell, 1967-)의 랑팡 플라자에서의 연주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.
◇ 보통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숭고는 압도적인 자연 대상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 때 느껴지는 것이다.
→ 아름다움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보는 데서 느껴진다. 그러나 숭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장대한 폭포를 발견하였을 때,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한 수동의 상태에 빠질 때 느껴지는 것이다. 들뢰즈(Gilles Deleuze, 1925-1995)나 리요타르(Jean-Francois Lyotard, 1924-1998) 등의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은 숭고미에서 타자에 대한 사유를 계승한다.